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미술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 연구

-초현실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유 혜 란

# 현대미술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 연구

-초현실주의 미술을 중심으로-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유 혜 란

# 인 준 서

유혜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최근 미술교육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활동의 결과로서 완성된 작품보다 과정상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창의성, 사고력, 정서적 안정감, 만족감 등의 정의적·심동적 목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술교육에 대해 작품 제작 및 감상활동을 통한 감정의 교류와 의사소통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미술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으며,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통한 미술 작품이 교육평가의 잣대가 되었던 종래의 습성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가르치는 것,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이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개발하는 것,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계발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최근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미술치료는 표현활동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미술 치료에 대한 연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미술치료에서 미술 표현활동은 심리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 표현활동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내면을 탐색하는 자기이해와 개인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풍요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을 분석하는 근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사와 미술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미술의 치

료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미술치료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라는 한정된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미술사에서의 초현실주의와 미술교육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예술을 통한 인간교육 내지 정신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슈타이너 예술교육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현실주의에서는 미술을 정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무의식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자유롭고 통합적으로 해방시키려 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초현실주의 미술활동에서 기대될 수 있는 심리 치료적 기능으로는 창의적 표현에 의한 잠재능력의 발현, 무의식 표현에 의한 자기이해, 자아표현에 의한 자아 존중감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이유는 미술치료 및 미술교육의 목적과 부합되는 이러한 연관성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의 여러 가지 미술 표현 활동이 어떠한 특성 때문에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즉, 초현실주의 미술활동에서의 심리 치료적 요소와 미술치료 활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초현실주의에서 활용한 미술활동 기법으로는 자동기술법(Automatism), 콜라주(collage), 편집광적 비평방법(La Méthode Paranoïaque Critique), 데페이즈망(dépayement)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술치료의 표현활동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는 꼴자주와 자동기술법을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적용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보았다.

그 결과 미술의 심리 치료적 기능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범위 및 제한점	4
<b>II. 이론적 고찰</b>	5
1. 미술교육학적 배경	5
1) 미술교육학자들의 견해	5
2) 슈타이너 교육예술론	7
2. 미술사적 배경	11
1) 초현실주의	11
2) 초현실주의 회화와 무의식 표현	15
3) 초현실주의 회화 기법	16
3. 정신분석학적 배경	18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18
2)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19
3) 정신분석학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20
4. 미술치료	22
1) 미술치료의 개념	22
2) 미술치료에 대한 견해	23

3) 미술치료의 의의	25
4) 미술표현을 활용한 심리치료 접근 방식	27
5)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30
<b>III 현장 적용의 실제</b>	<b>32</b>
1. 꼴라주 기법의 활용	32
1) 꼴라주 기법	32
2) 꼴라주의 활용	33
3) 교육적 활용	37
2. 자동기술법의 활용	39
1) 자동기술법	39
2) 자동기술법의 활용	40
3) 교육적 활용	43
3. 미술치료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	44
1) 지도 계획 및 주안점	44
2) 교육적 활용 모색 및 문제점	50
4. 교육현장 시사점과 한계점	51
<b>IV 결론 및 제언</b>	<b>53</b>
<b>참고 문헌</b>	<b>55</b>
<b>ABSTRAT</b>	<b>60</b>
<b>부록</b>	<b>62</b>

## 표 목 차

<표>-1	플라주 기법 지도 계획	46
<표>-2	플라주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	48

## 그림 목차

<그림 1> 에른스트 <나이팅게일에 놀라는 두 아이> (Deux enfants sont menacés par un rossignol, 1924) 뉴욕 현대미술관 ————— 36

<그림 2> 에른스트 <형상>(Massacre, 1927) 케임브리지 케슬트 야드—— 36

<그림 3> 에른스트 <복스 안젤리카>(Vox Angelica, 1943) Guggenheim Museum, New York ————— 36

<그림 4> 호앙 미로 <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Person Throwing a Stone at a Bird 1926) 뉴욕 현대 미술관 ————— 42

<그림 5> 호앙 미로 <아를르캥의 사육제>(Harlequin 's Carnival, 1924-25)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 42

<그림 6> 호앙 미로 <낮잠>(Siesta, 1925 ) Musee National D'Art Moderne, Centre Georges Pompidou ————— 42

<그림 7> 호앙 미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여성>(Woman Struggling To Reach The Unattainable, 1954) 파리, 마그 화랑 ————— 4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교과들의 중요성은 고루 강조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에 따른 이론적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타 교과에 비하여 미술교과는 체계적인 지식과 가치를 명확히 한 교과 이론의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술교육은 ‘시각적 이미지의 재현’이라는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술교육은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표현 활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미술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표현 활동과 자유로운 시각적 이미지의 재현을 거부한 채 획일화된 실기 위주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수의 미술적 소질을 지니는 학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미술학습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과의 지도내용이 학년별, 영역별 학습 비율에서 볼 때, 모두 실기위주의 화화, 구성, 디자인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회화에 편중된 경향을 띄고 있다.

이는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미술프로그램의 부족과 재료준비의 어려움, 학급당 과다한 학생 수와 교육과정상의 미술시수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급수의 수업을 담당하고 보니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활동이 아닌 특정 영역에 편중된 수업에 머물게 되어, 그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을 기능 중심의 편협한 가치로 한정시킴으로써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점점 평가절하 일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연구하는 적극적인 교사의 자세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술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술 교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술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최대화하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미술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

창의성을 중심개념으로 한 미술교육사조 이후,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이라는 사실적 표현주의 활동 이외에도 실로 다양한 미술교육의 효용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심리 치유적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20세기 이후 예술의 탐구 과정이 인간 중심의 내면탐구에 주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탐구 과정은 다양한 미술사조로의 발전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예술영역은 물론 정신분석이나 교육학, 심리학 분야 등과의 학제적이고도 통합적인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 뿐 아니라 교육 등에도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교육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무의식적 표현에 근거한 초현실주의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이와 관련된 창작활동을 통해 미술 치유적 기능과 교육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사조인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활용한 미술의 치유적 기능과의 연관성을 미술 교육적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 제 I 장에 이어 다음과 같은 체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먼저 미술 교육학적 배경으로서 미술교육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즉 다양한 교육적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미술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두 번째, 미술사적 배경으로서 초현실주의 미술 및 회화에서의 핵심인 무의식 표현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로써 초현실주의 미술표현을 미술교육적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미술치료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미술치료의 이론을 살펴보고 초현실주의와 미술치료의 근본이념인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제 III 장 현장 적용의 실제에서는 초현실주의에서 교육에 적용 가능한 회화적 기법, 플라주와 자동기술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의 표현특성을 통해 기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나아가 기법의 특징과 심리 치유적 기능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활용성까지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법의 활용성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구안함으로써 미술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 3. 연구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미술 교육학적 입장에서 미술치료의 순기능을 탐구하여 그 효용성을 알아보는 것이 미술교육학적 입장에서나 치료적 입장에서나 양자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을 전제로, 초현실주의 미술활동에 포함된 심리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함으로써 교사로서 하여금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자연스러운 내면 표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미술교육을 미술치료적 입장으로 재해석한 것은 본 연구자가 서로의 연관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견해일 수 있다. 미술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의 문제점만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므로 현장적용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의 연구 내용 즉 현대미술의 치유적 속성을 고려하여 교육에 적용한 저서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적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Ⅱ. 이론적 고찰

### 1. 미술 교육학적 배경

#### 1) 미술교육학자들의 견해<sup>1)</sup>

##### (1) F. Cizek 와 V. Lowenfeld

미술교육사상 유명한 작품을 모사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시키던 과거의 전통적 교육수법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한 학자들로 우리는 F. Cizek 과 V. Lowenfeld를 들 수 있다. F. Cizek은 학습자의 자유표현을 강조한 아동 중심의 지도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타고난 재능을 키워주는 자유로운 창작을 추구하는 교수법으로 유명하며, 오스트리아 미술교육학자며 심리학자였던 V. Lowenfeld는 성장발달론적인 입장에서 미술교육을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창의적인 내적 성장발달(Creative Mental Growth, 1947)의 표출’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중심의 미술교수법을 도입하여 창조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성장단계에 따른 학습자의 자연발생론적인 결과를 학습자의 단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들의 사상은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과 자유로운 자아표현을 위해 미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술은 또한 자연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 M. Barkan

---

1) 노부자, 「현대 미술교육의 새로운 동향」, 한국조형교육학회, 第9輯 Art Education Review, 1993, p.47~51 참조

미술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전통의 미술작품에 대한 비평적, 분석적 국면이 미술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술교육에서 제작활동만 강조되었을 경우 미술교육의 질이 저하되며 미술작품의 이해와 평가능력이 습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작품에 내재된 상징적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때 질 높은 미술교육이 가능해진다고 주장 하였다.

### (3) E. Feldman

인간중심 미술교육(Becoming Human through Art)을 주장한 Feldman은 미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하며 비평적 활동을 강조하며 작품비평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 (4) E. Eisner

미술교육이 ‘새로운 미술감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술적 안목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술적 안목을 기르는 것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학습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 (5) L. Chapman

미술을 통한 학습(Learning about art though art)을 주장하며 미술활동 중 제작활동과 감상활동을 통하여 미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피력하였

다. 미술의 목적에는 미술을 통한 자아만족, 미술문화유산의 이해, 미술의 사회적 역할 이해를 이룬다. 이 같은 내용은 실질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sup>2)</sup>

이상, 한 세기를 넘는 미술교육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미술교육이 창의성 계발과 자아표현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적 방향과 함께 사고하고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는 미술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즉 자유표현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사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교육의 지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비평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 2)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sup>3)</sup>

슈타이너는 교육예술론(Erziehungskunst)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예술적인 측면을 단순히 교육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교육 그 자체로 보았다.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단순히 예술적 교육 그 자체로 보고 모든 교육의 근본으로 보았다. 교육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단순히 예술적 기능과 감수성을 계발시키고자 하는 예술교육이나 미적 경험을 강조하는 미학 교육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술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현실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3단계로 보고 단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1 단계는 물리적 신체의 탄생 시기로서 0세부터 7세까지로 이 단계의 아이들은 주로 주위의 것을 모방하는 단계라고 말한다. 즉 아이들이 지각한 것 과 표현하는 것에는 결핍이 없는 단계이다. 그

---

2) 노부자, 「현대 미술교육의 새로운 동향」, 한국조형교육학회, 第9輯 Art Education Review, 1993, p.47 ~51 참조

3) 권준범, 「슈타이너 교육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vol8, 2001 참조

러므로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발육에 맞춰 감각을 키워주는 교육이 나아가 아이의 행동력과 의지력에 영향을 준다.

제 2단계는 생명체의 탄생의 시기로 7세~14세까지로 신체 발달에 힘이 생기고 이성의 힘과 기억력이 생기는 시기이다. 아이들은 이전의 시기와 달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표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때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 3단계는 14세부터 21세로 감정체 탄생의 시기라 말한다. 성의 성숙과 함께 어른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시기이다. 이때는 교사의 정확한 조력자 역할로 아이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기르게 해줘야 하는 시기이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른 교사의 적절한 교육이 아이들의 올바른 발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슈타이너는 인간의 이해의 기초로 기질론을 교사가 알아야 할 필수적 지식이라고 보았다. 기질론의 간단히 설명하면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로 크게 나뉘며 각각의 특성은 담즙질의 인간은 보통 모험을 좋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활동한다. 사고와 개념화를 잘하고 자아가 강하다 하지만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고 격하기 쉽다. 자기의 정의감을 남에게 강요하며 공격이나 복수를 기도하는 일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담즙질적 역동성이 있다. 점액질적 인간은 내적 조화와 안정감과 인내심이 강하며 조용하고 수동적이다. 단점은 친절성이 적고 동작이 느려 게으르기 쉽다. 방관적인 경향을 보이며 냉소적인 면도 지닌다. 우울질적 인간은 감상적이고 자아중심적이다.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며 걱정과 불안이 심하다 하지만 조용하고 진지하며 완전주의적 성격에 치우치기 쉽다. 다혈질적 인간은 우유부단하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현

재의 현상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자주 변하는 편이며 변덕이 심하며 성격이 불안한 특징이 있다. 낙천적인 성격은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한다. 이상의 네 가지 기질들은 인간에게 있어 어느 한 기질만을 지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가지 모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기질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기질상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슈타이너는 주장한다.

슈타이너의 교육에서 미술교육이 가지는 의의는 이상의 기질들을 바탕으로 인위적인 지도 방법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교육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자아 표현의 방법

미술표현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의의는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미술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형태를 통해 조형언어화 한다. 슈타이너 교육에 있어서 미술은 자아 표현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선이나, 색채 경험을 통한 자아 표현의 경험을 중시하였다 슈타이너는 인간내면에는 완전히 조화를 이룬 조형적 조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키우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자아 표현의 기회제공에 있으며 이것이 미술교육의 방법이 되어야 하다고 제안하였다.

아동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미술을 통하여 가장 쉽고 편하게 표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동의 자아 표현의 방법이며 조화로운 인간형성과 창의성 계발의 밑거름이 된다.

#### ② 감성의 함양

감성은 예술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으며 미술교육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미술은 자기표현과 감상을 통하여 감성을 함양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과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아동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교육을 함양 할 수 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미술교육에서 감성의 함양을 통한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감정과 관련이 있는 미술교육은 아동의 의지와 감정을 기르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 ③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조형언어

미술 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미술의 조형언어적 측면을 활용한다. 미술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미술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포르멘활동<sup>4)</sup>과 수채화법<sup>5)</sup>을 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위의 미술교육의 방법은 인간의 기질의 단점을 보완하며 미술교육에서의 그림을 그리는 조형적인 입장에서 외형적 형태보다 선과 색채의 다양한 체험으로 무의식의 감정을 창조적인 미술활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을 주장했다. 예술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 설명하며 인간 내면의 부분도 예술 활동의 표현을 통하여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슈타이너의 교육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단기적 담임제도나 교육 환경에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교육사상적 측면에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외형적 표현의 우수성, 즉 기교와 테크닉적 활동을 미술활동이라 생각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의 팽배와 슈타이너 교육에서의 교육은 여러 과목이 미술과목과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 슈타이너 미술교육의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

4) 포르멘 활동 : 단지 선을 그린다는 의미 이상으로 초감각적인 세계를 구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은 직선과 곡선이 기초가 되어 여러 가지 조형원리를 경험하게 하는 감정교육을 이르며 지능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내적인 발전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다.

5) 수채화법 : 색채 경험을 중요시하여 색채교육을 위해 혼합이 어려운 재료보다 색채의 혼합이 용이한 수채화를 이용한 색채 경험법을 말한다.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채화 물감의 자유로운 유희에서 색채 교육의 중점에 둔 것에서 출발한 활동이다.

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술교육의 수준의 고려만 있을 뿐 학교나 학년의 체계가 부족한 점이다.

미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미술교육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미술사적 배경

### 1) 초현실주의(Surrealism)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듬해인 1919년에 다다이즘(Dadaism) 운동이 가라앉을 즈음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다다이즘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전쟁을 거부하고 스위스 쥐리히로 물려든 예술가들이 그때까지 서구를 지배하여 온 이성애 반기를 들고 이성의 산물인 합리주의를 궤멸시켜 그것으로 만들어진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다다이스트들은 모든 전통이나 가치, 이성의 우위성, 예술의 형식, 권위 등을 부정하고 불합리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비예술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을 찬미하면서 일종의 파괴적, 부정적, 허무주의적 경향을 보였다.<sup>6)</sup>

다다이즘은 반 예술적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데에서 오는 필연적 악순환에서 몰락을 자초하였고 따라서 ‘다다이즘은 인생의 비극에 지친 나머지 불합리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제스처’<sup>7)</sup>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회생시키려는 움직임이 그 뒤를 이은 초현실주의 운동이다. 초현실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후 사회·경제·정치·문

---

6)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61

7) Hevert Read, Art Now, London: Faber & Faber, 1968, p.95

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도와 움직임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1924년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의 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e du Surréalisme)으로 시작되었다. 이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은 ‘초현실주의란 순수한 자동기술에 의해서 참다운 사고의 기능을 언어나 문자 등의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이며 꿈의 무관심한 사고의 작용 등에 잠재해 있는 억제된 연상의 실제성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sup>8)</sup> 초현실주의는 문명의 속박 속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성으로부터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원초적인 자유의 지평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다.<sup>9)</sup>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의 사상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헤겔의 철학<sup>10)</sup> 등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전통적인 인간학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 잠재의식의 세계를 밝히는 심층 심리학, 꿈의 해석, 토렘과 터부 등에 관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심리학은 물론, 예술·종교·문화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sup>11)</sup>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토대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시도했고, 자유 연상법인 즉 자동기술법<sup>12)</sup>을 통

---

8) Louis-Smith, 임영방· 김춘일 역, 「전후 현대미술」, 세운문화사, 1997, p.33 ,

9) Hevert Read, 김윤수 역, 「현대미술의 원리」, 열화당, 1981, pp.23~93

10) 헤겔의 변증법 : 초현실주의의 방법론 제시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을 근거로 하는 일종의 발전체제로서 이 모순은 한 사물이나 개념 안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동시 공존성을 발전한다 헤겔은 이 관계를 정(正), 반(反), 합(合)으로 표현했다. 하나가 생기면 거시서 그 반대가 생기고 그 반대는 전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제 3의 것인 즉 합(合)이 된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현실부정은 곧 새로운 현실로 통합하려는 부정의 철학이었던 것인 헤겔의 변증법과 통하는 것이다. (김은영, 상계서, p.6)

11)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p.15

12) 자동기술법 : 오토마티즘이라고도 하며 프로이트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자유연상법에 착안하여 응용된 기법으로, 깨어있는 사고가 마비되면 인간 내부에 숨어있는 유아성과 야만성이 대신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프로이트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이 무의식의 발현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다이스트들의 자유로운 이미지 연상, 우연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해 무의식의 세계에 다가가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론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방대한 욕망의 세계가 존재하며 원초적인 카오스가 내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욕망은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억제되어 있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무의식적 욕망을 밝혀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술은 현실을 재생산하는 대신에 인간과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미(美)의 개념은 다양하며 고전적인 미학에서는 질서정연한 구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의 현실성을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초현실주의자들의 무의식의 욕망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힘을 빌어 시공의 경계를 없애고 새로운 미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의 미의식을 창출해 내기 위해 억압된 충동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단서를 꿈으로 보았다.

브르통 (Andre Breton)의 선언서에서 표명된 꿈의 해석을 요약해보았다.

13)

첫째, 인간의 사고에는 일시의 중단이 없으며 시간상으로도 꿈꾸는 시간은 깨어있을때의 시간보다 결코 적지 않다.

둘째, 꿈은 지속적이며 구성적이나 우리는 추리 과정을 무시한 단편적인 꿈의 인상만을 갖는다.

셋째, 꿈은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생의 기본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깨어 있는 상태는 간접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꿈꾸는 사람의 정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

---

13) Lucy & Lippard(ed), Surrealists on Art, 1970, pp.01~27

는다.

여섯째, 꿈이 질서 있게 행동하고 향후 결정될 모든 방법에 있어서 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꿈의 그래프가 규칙과 풍부성을 보이면서 그려진다면 우리는 태고에서부터 있었던 위대한 신비 대신에 지금까지 몰랐던 신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상력에 한층 의존하여 자연적인 부분을 다시금 해석하기 위해 초현실주의는 꿈과 악몽 따위에서 많은 예를 보였으며 그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의 정신분석학에 따른 비교와 함께 인간의 행동과 작용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넓고 새로운 연상작용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으며 빙산의 물에 잠겨진 4/5 부분을 노출된 위의 부분처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역할」<sup>14)</sup>이라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그들이 인간성의 진정한 근원으로서 주장하였던 환상, 꿈, 상상 등 일상 세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세계를 열어 보임으로써 질서 정연하고 제한적인 일상세계의 문화양식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초현실주의는 일상적인 태도를 전복시켜야 했다. 또한 결국 일상적 태도의 전복을 위해 무례하고 어리석은 내용들을 쏟아 넣거나 비논리적인 사고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로 인해 초현실주의를 빌어 인간의 무의식 세계로까지 확장되었고 표현 면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다양함을 갖추게 되었다.<sup>15)</sup>

예술은 완전히 깨어 있는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생산될 수 없다고 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바로 프로이드의 학설에 근거하고 있다.<sup>16)</sup>

---

14) Joss Piere, a dictionary of Surrealism, W.J Strachen. 1974, pp.30~31

15)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2000, p.184

16) E, H 콰브리치, 백승길, 이종승 역, 「서양미술사」, 도서출판예경, 2002 p.591

결국 초현실주의자들은 미술이 정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회화를 통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극복하여 조화로운 세계를 예술로 승화 시키려 하였다.

## 2) 초현실주의 회화와 무의식의 표현

초현실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넘어서 있는 세계를 밝혀보려 했다. 그래서 무의식의 절대성을 강조하였고, 의식적인 것보다 우선시 하였으며 무의식적 욕망은 인간의 자유와 미래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과 충동을 억압으로부터 표현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자동기술법을 실험하였다. 꿈의 기술은 자동기술법을 통해서 보다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창조의 힘은 곧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은 초현실주의의 창조적 욕망을 발현시키는 원천으로 보고 그 단서를 꿈에서 찾았다. 꿈을 분석함으로써 자아의 방어로 억압된 정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꿈을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세계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지의 세계를 표현 하게 된다. 브르통은 꿈이란 우리가 원하던 소망을 예견하듯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꿈이 지닌 역동성에 대해 강조하며 초현실주의자들이 표현하는 미지의 세계는 다양한 예술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한다.

초현실주의는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꿈을 종합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초현실주의는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어떤 것 즉 외적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를 현실화시켜 좀더 본질적인 현실을 찾고자 하는 의미이다.

화가이건 시인이건 그의 의식 이면에 잠겨진 무의식을 얼마간이나마 이해하려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목적이며 그래서 무의식이나 꿈과 같은 정신상태의 심상들에서 얻고자 하였으며 프로이드의 이러한 무의식과 꿈의 분석을 통해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우연과 무의식의 세계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화적 기법을 창출하였다.

즉 초현실주의자들은 미지의 세계의 영역인 꿈, 무의식 등에 원초적인 자유를 부여하여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 3) 초현실주의 회화 기법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꿈의 분석에 자극을 받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그들이 추구한 무의식의 세계가 아무런 제약 없이 드러나게 하기위해 다양한 회화적 기법을 창출하기에 이른다.

초현실주의의 그림의 양상을 작가 위주로 살펴보면 에른스트(Max Ernst)의 초기에 빠빠에 콜레(Papier colle)를 발전시켜 마티에르가 있는 사물을 문질러 다양한 환상적 이미지를 발견하여 자신의 작품세계에 반영하였으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체를 시각적으로 우연적으로 구성하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자신의 회화적 미학을 제시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순수한 회화 기법으로는 내면세계의 표출을 무의식적 자동성에 두는 오토마티즘(Automatism) 즉 자동기술법적 표현 방법을 들 수 있다. 마송.(Andre Masson), 탕기(Yves Tanguy) 미로(Joan Miro) 등이 있고 특히 미로 작품 속에는 자연 발생적인 즉흥성이 보이며 특유의 상상력으로 독특한 표현방법과 환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선 그리고 원시적인 형태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

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한 영향으로 인간의 꿈이나 무의식 세계를 비합리적인 환상적인 세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편집증 환자에서 착안한 편집광적 비평방법(La Méthode Paranoïaque Critique)을 사용하였다.

편집증 환자가 한 가지 사물을 볼 때 본래의 상태에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상태로 본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러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모아서 보는 방법을 편집광적 비평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회화의 합리와 비합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데 따른 자연발생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편집광적 비평방법으로 인해 더욱 발전시킨 방법을 들자면 데페이즈망(dépayement)이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는 전위법을 뜻하는 즉 본래의 의미에서 떨어져 표현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대상을 세밀히 묘사하면서 관례적인 틀 속에서 떼어내어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하였다. 마그리트는 달리의 왜곡된 표현과는 달리 우리가 늘 보는 사물들을 상이한 관계로 표현하여 또 다른 느낌의 신비감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이해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인간 내부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만들었다. 무의식의 도움을 받은 오토마티즘(Automatism)과 우연적 기법들 미로의 원초적인 충동의 표현 등 꿈과 환상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표현세계는 초현실주의의 회화 정신을 말해 줄 수 있다.

### 3. 정신분석학적 배경

#### 1)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초현실주의의 예술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신분석을 통해 잠재의식의 세계를 고찰하며 히스테리, 꿈의 해석, 성분능의 이론을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다.

프로이트는 우선 정신구조를 무의식(無意識)의 체계와, 전의식(前意識)체계, 의식(意識) 체계로 분류하였다. 빙산의 예를 소개하면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부분이 의식이고, 수면에 걸린 부분이 전의식, 물 속에 잠겨 있는 광대한 부분이 무의식에 해당한다.<sup>17)</sup>

프로이트는 어떤 정신적 세력에 의해 의식에서 차단되고 있는 마음의 내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층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에 의하면 정신 분석은 무의식의 과정을 의식의 과정으로 해석하여 의식의 개념에 있는 틈을 메꾸는 작업이다. 또한 정신 구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는 퍼서널리티(Personality)를 형성하는 세가지 요소로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oper-ego)를 제시한다. 이드는 원초적 자아로 정신 속 깊숙이 숨어 있는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드는 쾌락 원칙에 지배되며 무의식적이고 성적 충동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이드가 곧 무의식이다. 왜냐하면 자아와 초자아에도 무의식의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이드에서 분화하여 발전한 것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 원칙과 양심의 통제를 따르게 한다. 초자아는 우리 마음의 도덕적 지각과 이상적 포부로 구성 되어 있다.

정신분석은 언어, 행위, 정신작용의 무의식적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연구방

---

17) 신현숙 전게서, p.31.

법이며, 무의식을 해석하거나 표현을 억제하는 저항을 다루어서 정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방법, 무의식의 해석이나 환자의 치료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인간의 심리를 기술, 설명, 통제하려는 심리학적 이론과 정신병리학적 이론의 체계다.

## 2)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정신분석이론을 예술의 현상에 적용하고 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예술은 인간행동의 독특한 영역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무의식과정에 의하여 지배되는 많은 인간행동의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적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구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달리 말하자면, 예술가는 억압된 욕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유쾌한 내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예술의 창조는 불유쾌한 내적 긴장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유쾌한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대리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하여 즐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 18)

프로이드는 예술적 행위의 무의식적 비이성적 설명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이해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18) Freud는 *Unebhagen an der Kultur*에서 예술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안전한 상상의 세계에서 충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Freud는 이 저서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실패를 참아내고 극복하도록 하는 세 가지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학문이다. 사람들은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불유쾌감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거시킴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된다. 둘째로는 종교를 들고 있다. 종교는 성적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전화시키고 동시에 현세의 삶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예술을 들고 있다. (M.Schuster &H. D. Dumpert, "Kunstpsychologic. Was finden wir Watum Schön?" *Psychologie Heute*, 6 (4), p.31)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생애 및 예술관을 분석하면서 예술적 동기는 원초아의 강한 본능적 욕망과 이들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억압하려는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단순히 예술의 현상을 단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국한시킨 것에 비하면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Jung의 행동양식적 측면의 이론들로 확장시켜 보다 이해의 폭을 넓혔다.

### 3) 정신분석학 측면에서의 미술교육

예술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은 예술이 내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교육적 역할로 볼 수 있다. 예술은 쾌락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 사이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나와 현실의 나를 타협시켜준다. 그러므로 주체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 그의 내부에서 머물며 괴롭힌 것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을 통한 승고한 과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19)

미술표현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도 기대하게 되는 미술 치료의 개념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외면화함으로써 내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예술의 이러한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제작자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예술은 극한 상태로 체험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하나의 단순한 스펙타클로 변환시켜, 내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적 효과를 준다는 점은 미술의 교육적 역할로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20)

예술은 내적 균형과 또 다른 보다 폭 넓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것은 내적인 억압된 감정의 분출과 함께 자아(自我)와 비아(非我)의 부조화된 서

---

19) 이은적, 「이미지 문명 시대와 미술 이미지의 힘 (예술심리학관점으로 본 미술교육)」 教育學研究, 2003, vol. 41 pp.93~115 참조

20) 이은적, 상계서 p.108

로 다른 관계의 두 현실의 타협을 배운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명한 학자 Herbert Read가 ‘예술을 통한 교육’이란 이론 속에 교육은 개인의 발달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개인화 과정’과 사회와 타협하려는 ‘통합의 과정’이라고 한다. 예술은 통합의 과정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매개물이며 이를 위해 심리학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Read의 주장이다.

예술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의 의식과 무의식의 현상에 대한 예술 심리학적 관점은 개인의 발달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미술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더 폭 넓은 관점에서 미술 치료의 관점과 미술 교육적 역할을 찾게 해준다.

## 4. 미술치료

###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 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Ulman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Ulman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다고 술회하면서,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던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sup>21)</sup>라고 진술하였다.

미술과 치료는 두 가지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치료에 중점을 둔 입장과 미술에 중점을 둔 입장을 들 수 있다. 치료에 중점을 둔 입장은 미술치료를 정신분석학적 치료법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며, 미술에 중점을 둔 입장은 미술로서의 창작과정 속의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로 하되 의식과 무의식을 미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미술의 과정 속에서 치유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미술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치료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견해 모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미술적 측면은 미술의 발달, 표현 뿐 아니라 모든 조형활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필요하다. 학문적으로는 조형론, 기호학, 시지각,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 아동표현 발달, 미술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의 예술적 작품은 단지 심미적 기준에 의해 감상하지만 내담자의 작품은 이 기준 이외에 미술표현 발달 단계, 개인의 독특한 표현양식과 대처 방식, 상징적 의미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치료적 측면은 정신의 역동적 기능에 대한 정

---

21)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화문화사 출판부, 2000, p.33

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학문적으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치료학, 상담학, 현상학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활동에 미술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 2) 미술치료에 대한 견해

### (1) Naumburg의 견해

Naumburg는 1890년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성장하였다.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공부한 그녀는 1920년에 뉴욕의 윌튼학교에서 미술교육의 한 방식으로 자발적인 그림(spontaneous art)을 시도한 후 그것을 그림치료의 한 모델로서 개발하였다. 그녀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표현과 그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중시하였다. 그녀는 Freud와 Jung, 그리고 Sullivan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Naumburg은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에 있어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말보다는 그림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둘째,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언어적 표현보다는 검열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치료과정이 촉진된다.

셋째,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영속성이 있어서 내용자체가 망각에 의해 지워지지 않으며 그 내용을 부정하기 힘들다.

넷째, 전이문제가 더 쉽게 해결된다. 즉 환자의 자율성은 자신의 그림을

---

22) 권준범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 10집, 2003 p.21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고무된다.

### (2) Kramer의 견해

Kramer는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그림의 치료적 속성은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미술작업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전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Kramer는 Naumburg와는 다르게 치료자의 역할을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화와 통합의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치료로 보고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로 표현하였다.

### (3) Ulman 의 견해

Ulman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며 1950년대 초반에 정신병원에서 미술치료사로서가 아니라 미술교사의 자세로 일했다고 전한다. Ulman은 정신분석과 미술적 통찰사의 미묘한 관계를 실감하면서 그의 이러한 생각을 그림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Ulman은 그의 저서를 통해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이란 용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녀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미술심리치료를 사용했고, 미술심리치료가 통하는 곳에서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사용해서 이 둘 간의 융통성을 선택했다.

그녀는 예술적 성취감 또한 중요시 여겨야하며 미술치료 속에는 창조적인 측면도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한 견해의 중요성보다 미술치료에 있어서 치료는 하나의 과정이며 미술치료의 과정들이 단순히 한정된 한계를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3) 미술치료의 의의

미술치료가 같은 의의에는 미술치료가 미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미술치료가 같은 장점이 왜 미술치료가 필요하며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을 제공할 것이다.

(1)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심상(Image)으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말 이전의 심상으로 떠올린다는 것이다. 미술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표현보다는 예술매체를 통한 심상의 자극으로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2) 미술은 방어가 감소된다.

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방어이며 언어는 어떤 의사소통 양식보다 우리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예상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소에서 제작될 수 있다. 그것이 미술치료의 가장 흥미있는 잠재성 중의 하나이다.

(3)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표현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4)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회상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보다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작품들의 변화를 통하여 과정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5)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공간성은 경험의 복제라고 할 수 있으며, 미술표현은 가족을 소개할 때 그림으로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가깝고 먼 것이나, 결합과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감정, 특정한 속성, 생활환경등 개인과 집단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6)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표현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해석된다. 영화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하나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들은 미술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에도 활용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미술 치료의 장점은 미술교육에서 획일화된 표현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23) 한국미술치료 학회, 전계서, pp.40~42

#### 4) 미술표현을 활용한 심리치료의 접근 방식

##### (1) 정신분석적 접근

프로이드의 이론을 근간으로 분석가들이 꿈의 해석, 자유연상, 저항과 전이의 분석과 해석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정신 분석가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으로 미술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즉 내담자의 무의식적 심상을 스스로 표출하게 하여 그 사람의 내면세계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치료 활동을 한다.

정신분석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된 창조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 (2) Jung(Carl Gustave Jung)학파의 분석적 접근

Jung학파는 내담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도록 하였다.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심상을 그대로 그려내어 인간의 심상을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보단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들로 보고 서로간의 이해의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Jung학파는 미술활동 즉 미술매체를 통해 능동적 심상을 끌어 내어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여 풀라주 기법을 통해 무의식적 형태 감각이 더욱 명료해 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내적인 대화를 하고 그로 인해 심상을 상상 할 수도 있으며 창의적인 활동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미술치료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한다. 현상학적 미술치료는 현상학자 훗셀이 주장한 의도성(intentionality)에 기본 개념을 둔다. 의도성은 우리들의 의식은 주변의 모든 대상으로부터 항상 관계하고 분석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상학적 미술치료는 개인 또는 집단적 치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

현상학적 미술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선택 할 자유를 주고 자신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4) 게슈탈트(Gestalt) 미술치료 모형

게슈탈트(Gestalt) 미술치료는 펄스(F.Perls)에 의해 주창된 상담심리 치료 이론이다. 실존주의 철학이 현상학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게슈탈트치료는 현상학 실존주의의 영향과 정신분석, 게슈탈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정립된 것이다. 그래서 게슈탈트치료의 인간관은 실존적인 삶을 통한 성숙한 인간에 두며, 치료의 목적은 분석이 아니라 자아의 통합에 있다.<sup>24)</sup>

순수한 자아의 표출과 의식 훈련의 기법을 사용한다. 즉 여러 가지 연습에 의해 내담자가 도형과 배경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게슈탈트의 미술치료와 관련된 게슈탈트기법을 보면, 게슈탈트 꿈 작업(dream work)기법은 미술치료기법과 유사하며 그들의 시각적 심상에서 자발적으로 표현된 의미에 대한 내담자의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즉 꿈의 형태

---

24)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게서 . p.53

를 그들 자신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결국 꿈을 현실화하고 재연시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술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점토작업 게임이나 느낌에 대한 그림 그리기 기법, 선 게임등도 게슈탈트 미술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책임 있고, 정직하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가게 하고자 한다. 시각적으로 묘사된 진술을 상호간에 탐구하면서 두 사람이 접촉하게 되며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게슈탈트 미술치료사는 모든 내담자가 그들 자신의 메시지로 그들의 욕구와 자원을 인지하기위해 최대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 (5) 인간중심적 접근

과도기적 청소년 시기는 인간중심 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인간중심 미술치료는 전인격적 통합을 중요시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신체의 조화로운 협력이 그 목적이며 삶에서의 고통, 불안 등을 회피하는 길을 찾는 대신 창조적 표현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찾는 것이다.  
25)

인간주의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를 삶의 적응 과정 중에 특정한 문제에 부딪쳐 그것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다. 이러한 주체성을 찾는 근원이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꿈의 해석이며 내담자들의 무의식으로부터 메시지를 얻는다. Jung이 말한 바와 같이 꿈은 깊은 상징적인 메시지로 실제적인 문제해결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

25) 권준범, 「마술심리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2

하였다.

내담자 스스로의 치유의지와 능력이 문제의 고통을 낮춰주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법이다.

인간중심 미술치료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드 자아 초자아 등 여러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만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5)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미술교육은 학생의 인지적 영역, 지적영역, 행동적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성장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미술치료는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 또한 미술교육이 미적 안목과 미적 요소의 습득에 비중을 둔다면 미술치료는 기술적 습득보다는 활동 자체에 더 비중을 둔다.

용어 그대로 미술치료는 의학적 입장을 미술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적 입장을 취하므로 서로 차이는 있지만 미술 활동이 전제되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이 가지는 의미는, 미술치료는 정상의 학생이든 장애가 있는 학생이든 창의적 표현을 해방시키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여기에서의 창의성은 무의식의 억압된 정서를 해방시켜 자신만의 특수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의 억압된 긴장을 완화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감정들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미술표현 그 자체가 자신의 내면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 ① 풀라주 기법

풀라주 기법은 잡지나 신문지 등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내용을 그대로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붙이고 싶은 부분에 붙여 미술활동에서 필요한 기술적 기능이 적어 표현활동의 거부감이 적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감정전달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매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미술치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술에서 말하는 순수한 풀라주 작품을 내담자가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상→밑그림→붙이기→정리→건조등의 순서를 거치고 다 만든 뒤에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한다. 둘째는 풀라주 형식을 할때 하나의 미술작품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당한 그림을 찾아 구성하는 방법이다. 26)

### ② 과거 현재 미래 그리기

과거 현재 미래의 사진을 풀라 풀라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자아개념 형성 프로그램이다.

### ③ 난화법

난화법은 이야기법과 종합하여 응용한다. 자유롭게 선을 긋는 활동 속에서 심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풀라주 기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다른 여러 기법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하며 특정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미술치료 기법이 교육에 활용되려면 미술 교육적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6) 한국미술치료 학회 편, 전계서, p.627

### Ⅲ. 현장적용의 실제

#### 1. 콜라주 기법의 활용

##### 1) 콜라주(collage) 기법

콜라주란 프랑스어의 동사 콜레(collere)에서 유래되었으며, 콜레라는 말은 ‘붙이거나 접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화면 안에 여러 재료를 선택하여 조각들을 붙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료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인쇄물이나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 물체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기법이다.

근대에 들어 등장하여 조형적 언어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대 이전부터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고대 원시인들, 남서양의 원주민들, 인디언들, 에스키모인들, 이라크인들 등은 제례용 의식 행사에 몸에 여러 가지 물체를 붙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남아 콜라주 기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민속 미술에서 자르거나 붙이는 콜라주의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콜라주는 독특한 특성들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콜라주의 독특한 특성들에는 먼저 전통적 서양화 기법들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인상과 화가들이 빛에 의한 사물의 객관적 색채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인간 내면의 감정과 회화 자체의 순수성을 따르려 하던 것에서 벗어나 재현된 회화보다는 만들어진 사물이 예술가의 이성적 사고와 결합하여 질서

를 이루는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중점을 두게 하였다. 그로 인해 입체파 화가들은 실제 이미지를 콜라주 기법을 화면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콜라주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직접 사용하여 표현 하였고 그로 인해 회화의 영역을 생활 주변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화면 안에서 콜라주 기법은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를 한 화면에 결합시킴으로써 기존의 회화적 기법의 원근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간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 원래의 이미지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창출로 인해 상상력이 풍부해지게 하였다.

이상 콜라주의 독특한 특성은 현대 미술의 빠삐에 폴레<sup>27)</sup>, 앓쌍블라주<sup>28)</sup>, 프로타주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 2) 콜라주의 활용

콜라주는 입체주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입체주의 시대의 화가 세잔느의 회화작품에서 비원근법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위해 한 화면안에 여러 시점을 담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콜라주가 활용되었다. 물체를 분해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분석적 입체주의에서부터 종합적 입체주의까지 콜라주의 기법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 중 종합적 입체주의에서의 평면적인 색면 구성의 방법으로 콜라주나 빠삐에 폴레 기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합리성을 거부하고 반 이성적인 다다이즘(Dadaism)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다(dada)에 나타난 콜라주 기법은 기존의 미학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기

---

27) 빠삐에 폴레 : 회화기법의 하나로 그림물감 이외의 다른 소재를 화면에 풀로 붙여서 회화적 효과를 얻는 표현형식. 사용되는 소재는 신문지, 악보, 모래, 철사, 조각, 새털, 보석, 유리 등 수없이 많다. (<http://www.encyber.com>)

28) 아상블라주 : assemblage 폐품이나 일용품을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기법 및 그 작품 (<http://www.encyber.com>)

위하여 기성품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다다의 예술상에는 기존의 예술의 부정, 전통적 회화기법에 대한 저항, 파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종래의 예술에서 쓰였던 기법이나 재료 등을 배척하여 표현하는 형태 속에 꼴라주의 기법이 등장한 것이다.

다다이즘에 활동한 작가들은 꼴라주 기법의 활용에 있어 재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연적 소재든 공업적 소재든 다양하게 가져다 쓰는 형태를 보이며 전통적 가치나 기존의 관념에 대한 부정을 하는데 있어 여러 물체를 활용하여 화면에 조합시킴으로 새로운 형태의 회화 양식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다의 꼴라주는 기존의 꼴라주와는 달리 아르프(Hans Arp 1887~1966)의 작업에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기법이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종이 조각들을 보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현상 속에서 표현하려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표현적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다다의 꼴라주는 자동기술법적 의미의 꼴라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등장한 초현실주의도 다다의 실험적 정신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며 꼴라주 기법을 한층 더 회화기법으로 재창조하였다.

초현실주의의 꼴라주는 대상을 본래의 의미와 일상적인 상태를 거부하며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환경에 덩으로써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의 결합 속에 환상적이고 신비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에서의 꼴라주의 성질은 작가의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심리적 반응을 관람자로 하여금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시키게 한다는 의미에서 초현실주의의 사상을 잘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꼴라주는 ‘내재적’ 주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화가의 정신에 의한 기존요소의 재배치일 뿐이며, 이러한 요소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자일 뿐이다. 자동기술의 경우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

어의 새로운 배치 방법이 발명되었을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꼴라주는 회화의 주관적 재료를 발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진전이었을 뿐이다.<sup>29)</sup>

초현실주의에서 꼴라주의 대표 작가를 꼽으라하면 단연 에른스트를 들 수 있다. 에른스트는 그의 회화에 등장하는 새, 동물, 식물과 같은 형상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꼴라주, 프로타주<sup>30)</sup> 등을 사용하여 다른 화가들과 달리 독특한 회화 양식을 보여준다.

에른스트는 ‘서로 공감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상처되는 두 가지 사물을 하나의 평면 위에 올려 놓았을 때 그 두 가지 사물은 서로 만나는 순간 자극된 에너지를 교환, 발산한다’<sup>31)</sup>고 말하였다. 서로 관련이 없는 사물이 만남으로 신비로운 감정, 즉 환상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그는 꼴라주야말로 이성의 총제적인 지배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자기의 내적 경험을 충분히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sup>32)</sup>

꼴라주에 대한 에른스트의 정신이 발전해 갈쯤 1925년 프로타주 기법을 우연히 마룻바닥의 나뭇결을 보고 발견하게 된다. 나무 무늬를 얻기 위해 종이를 대고 새겨질 때까지 문질러내어 무늬의 흔적 속에서 또 다른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타주 방법은 자동기술법적인 정신반응을 잘 반영하여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화가의 의식을 축소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꼴라주의 기법과도 상통한 의미의 방법이다. 이후 자동기술법은 나름의 또 다른 형식으로 초현실주의의 회화적 기법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

29) 호세 피에르 「초현실주의」, 열화당, 1979, p.15 .

30) 프로타주 기법 : 회화에서 그림물감을 화면에 비벼 문지르는 채색법이다. 원뜻은 마찰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froter에서 나왔으며 프로테르는 본래 얇게 칠한다는 뜻이 있다.(<http://www.encyber.com>)

31) Alfred Neumeyer. The Search for Meaning in Modern Art. Prentice Hall, 1964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 이경희 역, 열화당, 1992, p.111

32) 로베르 르네. 김정란 역, 「초현실주의」, 열화당, 1990, p.50

에른스트는 꼴라주와 프로타주를 통해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효과에 의해 관람자로 하여금 잠재의식을 일깨우게 하였다.

이렇게 큐비즘의 꼴라주는 형식적인 방법인 빠빠에 꼴레에서 출발을 하였고 다다에 와서는 정신세계의 부정적인 요소로써 이용되었으며 초현실주의의 꼴라주는 화가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꼴라주의 효과는 충격적이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아름다움이나 환상적인 느낌을 갖게 하므로 인간의 무의식세계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한 기법으로 간주되는 꼴라주는 초현실주의 이후의 현대미술 전반에 폭넓게 침투된 표현방법으로서 자동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꼴라주야 말로 일상의 진부함과 완고한 사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무기라 볼 수 있다. 33)

에른스트의 작품 중 몇 작품을 살펴보면 <나이팅게일에 놀라는 두아이>(Deux enfants sont menacés par un rossignol, 1924, 그림 1) 작품에서는 초인종과 작은 문등의 현실적인 오브제를 통해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일상적 재료의 우연적인 결합으로 일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며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효과를 가져왔다. <형상>(Massacre, 1927, 그림 2)에서는 프로타주기법을 활용 하였는데 우아한 에로티시즘 느낌을 주며 의자 등받침을 프로타주해서 얻어낸 흔적이 마치 옷의 레이스처럼 보이는 효과를 보인다. 프로타주의 효과로 인해 그림의 또 다른 괴이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

에른스트는 <복스 안젤리카>(Vox Angelica, 1943, 그림 3)에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절묘하게 어울리게 적절한 부분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의외의 모습들로 인해 관람자로 하여금 놀라운 효과를 주면서 작품속에 빠져들게 한다.

---

33) 김은미, 「초현실주의 미술에 내재된 무의식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3, p.32

결론적으로 에른스트의 꼴라주는 일상적 사물의 배치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물의 일반적 속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꼴라주 작품들은 기이하고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에른스트의 꼴라주 기법은 우연과 무의식의 상태 즉 꿈과 같은 환상적인 세계의 표현을 작품화면에서 통일시키려 하였다.

불이는 꼴라주에서 프로타주까지를 통해 이제껏 보지 못했던 형상들의 결합으로 확장하여 더욱더 기묘하고 환상적인 화면을 연출 할 수 있었다. 꼴라주의 순수한 우연성을 통하여 에른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그가 추구하는 무의식을 보고자한 외적, 내적의 통합의 의도는 초현실주의 작업의 큰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 3) 교육적 활용

꼴라주 기법의 심리치료 요소의 교육적 활용성은 조형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조형능력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이나 미의식을 얼마만큼 형상으로 구체화 시키느냐에 따라 조형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형화 시키지 못하면 미술에선 의미가 없다.

이러한 조형능력은 미술작품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좁은 의미보다는 자신의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줄 아는 능력 또한 포함한다. 꼴라주 작업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조형성을 자유롭게 기술이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 미술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다.

꼴라주 기법은 예상치 못한 화면들의 결합으로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 풍

부해지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즉 창의력의 신장을 시켜 주고,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며 다양한 사고를 부여하게 된다. 즉 풀라주 작업 동안의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정교화 등의 과정이 창의성과 관련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조형능력과 창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며 창의성은 또한 심리적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여 자아의 완전한 발달 상태로 연결된다.

따라서 풀라주 기법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자동기술법의 활용

### 1). 자동기술법

‘자동기술 (l'écriture automatique)’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나 성과로 평가되어, 오늘날 초현실주의적이란 말은 바로 자동기술적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만큼 초현실주의 활동은 자동기술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4)</sup>

자동기술법은 1922년 앙드레 브르통이 필립 수포와 함께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작가 스스로 자신을 외부세계와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생겨나는 모든 형태의 사고를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창안하였다. 자동기술법은 프로이드의 자유연상법을 응용하여 내면에 감추어진 무의식을 외부로 드러내는데 있어서 이성적인 면을 배제하고 잠재의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제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기술법 즉 오토마티즘의 표현은 무의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심리의 상태를 이성이나 규제를 늦추는 과정을 겪으면서 순수한 상태로서의 창작에 다다른 것이며, 서로 모순된 것들이 대립에 의한 상호조절과정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본질적인 본성에 가까워진다. <sup>35)</sup>

브르통과 초현실주의자들은 절대자유를 갈망했으며 인간해방을 원했는데 예술이 해방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나 억압요소들이 어떤 것에 주로 있으며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방법을 강구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자신들이 시작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데 무의식 세계의 가능성을 그 대상으로 하여 모순이 용해되어 조화를 이루

34) 오생근, 「자동기술과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의 의미와 특성」,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1992. p.35

35) 박현영, 「S Freud의 무의식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Automatism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p.128

는 지점<sup>36)</sup>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이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보게 되며 브르통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가능성을 프로이드의 자유연상에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자들이 갈망하는 인간해방의 무의식표현을 문학이나 회화에 있어 상상력의 원천이 된 것이다.

예술가에게 있어 무의식은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력이 활동하는 곳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억압된 것이 승화되어 예술의 형태로 다시금 탄생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회화기법들은 자동기술법적 요소를 사용하여 보다 풍부한 회화기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자동기술법의 활용

자동기술법 즉 오토마티즘은 프로이드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자유연상법에 착안하여 응용된 기법으로, 깨어있는 사고가 마비되면 인간 내부에 숨어있는 유아성과 야만성이 대신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프로이드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예술은 완전히 깨어있는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생산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마음속 깊숙이 깔려있는 그 어떤 것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정신상태를 갖기를 열망하였다. 그리하여 순수한 심적 자동주의를 통해 그들이 이정보다 우위에 두었던 무의식세계, 꿈, 환각 등을 끌어들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창조하려고 하였다.<sup>37)</sup>

---

36) C. W. E. Bigsby 저 박희진 역, 「다다와 초현실주의」 문학비평총서 제 2집, 서울대학교, 1979, p.76 ~77

37) 이화여대 미술연구회(편). 「현대미술의 동향2」, 눈빛, 1994, p.169

초현실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흐르는 영감의 원천이자 무한한 창조력의 숨겨진 보고로서의 무의식을 열렬히 탐구 하였고, 오토마티즘을 통해 비이성적인 것과 경이로운 것의 쟁취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초현실주의는 때로 최면상태들을 유도함으로써 이성의 저지를 받지 않는 꿈과 같은 차원의 현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38) 이제껏 우리가 모르게 억압되어 왔던 무의식의 세계의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회화의 폭을 더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의 화가 중 호앙 미로(Joan Miró)는 잠재의식 뿐 아니라 우연성을 중요시여기며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기술법을 활용하였다.

미로는 자연적 형태들을 유례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철저히 변형시켰으며 오토마티즘으로 열렬히 전환하여 물방울이 튕 듯한 채색된 얼룩들을 화폭에 채우기도 하였다. 미로의 회화는 엄밀하게 마송과 에른스트가 1924년 정의한 좀더 추상적이고 자발적인 ‘자동 기술적 작품’들과 환상적이고 주의 깊게 만들어지고 비이성적인 ‘꿈의 이미지’를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다.39)

호앙 미로의 작품은 꼭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신비함과 모호함이 보여지며 그는 꿈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꼭 관람자로 하여금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미로가 보여주는 자동기술법은 무중력한 가벼운 느낌으로 내면세계를 표현한다. 그리하여 미로의 그림은 꿈과 어린시절의 환상적 느낌을 추구하여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러운 선 표현이라든지 원색적 색채가 눈에 띈다.

미로는 작품제작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모든 근원적인 힘을 시각 언어, 즉 조형언어로 만들고 그리고자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공격적인 선을 그대로 한번에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지 않고 오직 충동

---

38) Elizabeth Cowing "Dada and Surrealism" in A History of Art by Sir Lawrence Gowing (ed), Andromeda books, 1983, p.882

39) Elizabeth Cowing 상계서, p.882

이 단는 대로 자발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열정적인 흥분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나는 몰입을 위해 육체적인 충동을 따른다. 그것은 육체적 배설과도 같다’라고 미로는 표현하였다. 40) 이 말로써 미로를 초현실주의 작가들 중 가장 초현실주의 미학을 실천한 작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초현실주의가 실천한 무의식의 표현과 인간 정신의 해방을 위한 미로의 이념은, 환상적인 화면 구성과 아이 같은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훌륭히 표현하였다.

미로의 작품 <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Person Throwing a Stone at a Bird 1926 그림 4)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포착한 것으로 변덕스러우면서도 불안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 보여주는 얼룩이나 점들은 무의식적으로 붓이 가는 대로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미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림에는 원색적 색채가 짙으며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의 조화로운 구성은 그림의 구성을 한층 더 조화롭게 한다.

<아를르캥의 사육제>(Harlequin's Carnival, 1924-25 그림 5)은 대상을 기호화하여 자유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것은 미로의 환각적인 이미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간결한 점, 선, 곡선을 이용하여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시적 환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미로는 자연발생적인 즉흥성과 시적인 환상으로 단순하면서도 특유의 리듬감 있는 그림으로 탄생하였다.

<낮잠>(Siesta, 1925 그림 6)에서는 화려했던 색채는 조금 억제되어 표현되고 선의 표현으로 평면적 형태를 만들었다. 화면 안에서 생명력과 신비적 이미지로 느껴지게 하였다.

미로의 작품들은 자유분방한 표현 속에서 즉흥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언

---

40) Herbert Read, 김진욱 역, 「미술의 역사」, 범조사, 1986, p.115

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여성>(Woman struggling to reach the unattainable, 1954 그림 7) 에서는 즉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꾸밈없는 표현으로 작품을 제작 하였다.

미로가 보여주는 자동기술법은 드로잉적인 자유분방한 필체 원색적 색채의 적절한 조화, 그 속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화면 구성, 왜곡된 형태 속에 화가가 갈망하는 상징들을 담아내어 제작하였다.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무의식속에서 모든 근원을 찾으려 하였던 것을 미로는 실천으로 옮겼으며 회화의 순수성을 볼 수 있게 하였다.

### 3) 교육적 활용

자동기술법의 심리치료 요인의 교육적 활용성은 무의식의 표출에 의한 자기 이해 및 창의력 신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미술적인 매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자동기술법은 자연 발상법 중의 하나로 우연의 효과를 이용해 잠재된 창의성의 영역을 자극하여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Lowenfeld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들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연의 효과를 통해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무의식을 통한 자동기술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발견하여 상징화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작가들의 작품의 제작과정은 우연한 기회 속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으로 탄생한다.

자동기술법의 심리치료 요인은 획일화된 미술 교육의 현상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아표현을 통한 창의력을 신장시키게 해줄 것이다.

### 3. 미술치료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

#### 1) 지도 계획. 및 주안점

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내적 표현 능력과 조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4주간에 걸친 학습 프로그램 계획이다.

학습지도 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적용에의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하도록 한다. 미적체험 활동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 효과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도록 초현실주의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함께 다양한 회화기법의 작품들을 감상한다. 미적 체험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이에 기초한 표현활동이나 감상활동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플라주 수업에 있어 다양한 표현재료와 용구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러므로 표현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에 있어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셋째, 주제에 맞게 적절한 재료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기주도적인 계획과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다양한 작품이 나오도록 지도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재료선택에 있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폐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2) 학습 지도안

### (1) 단원명

폴라주로 표현하기

### (2) 단원 설정의 이유

#### ① 교사의 입장.

학생들에게 폴라주 기법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스스로 다양한 폴라주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 ② 학습자의 입장.

폴라주 기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재료선택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폴라주 기법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다.

### (3) 단원의 학습 목표

#### ① 이해

가. 폴라주의 특성을 알고 표현방법을 이해한다.

#### ② 기능

가. 자유로운 표현활동 속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나. 주변 재료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특징을 알고 화면에 구성하

여 표현 할 수 있다.

③ 태도

가. 꼴라주 작품의 올바른 감상태도를 알 수 있다.

나. 꼴라주 작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4) 단원의 차시 및 지도 계획

<표>-1 -꼴라주 기법 지도 계획

단원명	꼴라주로 표현하기		소요시간	4차시
단원목표	* 꼴라주 작품에 나타난 표현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꼴라주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다.			
단원의 개관	* 꼴라주는 그림조각이나 인쇄물을 오리거나 붙여서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다. * 재료와 용구에 따라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도상의유의 점	* 꼴라주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을 이해시킨다. * 다양한 재료사용에 있어 폐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주제	차시	핵심 내용	학습자료	
꼴라주에 대한 이론 및 감상	1/4	- 꼴라주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 할 수 있다. - 꼴라주 기법의 미술 사적 배경과 작가를 알고 활용 할 수 있다. - 초현실주의 작품 감상 및 토론을 통해 꼴라주 기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차시 예고를 통해 주제에 따른 계획표를 과제로 준비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재료의 탐색 개발하도록 지도 한다.	-PPT 교과서 참고서	
표현하	2/4		-PPT 참고 예시 작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주제로 플라주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할 수 있다.</li> <li>- 화면안의 표현을 자신 스스로 계획하고 제작하여 표현 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li> </ul>	
다양한 재표활용하기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이 보는 나 와 내가 보는 나 '를 주제로 플라 주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할 수 있다.</li> <li>- 자유로운 표현을 하도록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평면제작과 입체 제작 모두 활용 하도록 지도한다.</li> </ul>	-PPT 참고예시작품
작품감상및평가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다.</li> <li>- 자신의 작품의 작품 평가 및 감상문 작성을 할 수 있다.</li> </ul>	-감상 기록지

(5) 프로그램 활용안

본시 학습 지도안은 풀라주 기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이다. 그리거나 만들기가 아니어도 생각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2 풀라주를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

단원명	풀라주로 표현하기	학습모형	차시	2/4
대상	고등학교 1학년	개별학습		
학습 목표	1.풀라주의 기법을 효과와 특징을 알 수 있다. 2.풀라주의 특징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지도 및 유의점
수업전개	교수-학습의 내용			
	교사활동	학생활동		
도입	◇ 수업 주제 제시		5'	파워포인트 자료  표현 재료 (4절 켄트지, 연필, 사진자료)
전개	전 시간의 풀라주 기법 자료를 보여주며 작품 제작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수업주제(내가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를 안내한다  -과제(계획표)를 준비했는지 확인 한다  실기준비여부를 확인한	-유의사항을 인지한다.      -계획표를 준비한다.  -자신이 가져온 준비물을 체크한다.		

	<p>다.</p> <p>◇ 작품제작</p> <p>-주변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작품 활동 중 타 학급의 작품을 제시하여 참고하게 한다.</p>	<p>-학생 각자가 자유롭게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다.</p> <p>-자유롭게 연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p>	40'	과워포인트 자료
정리	<p>◇ 정리하기</p> <p>완성된 작품은 제출하고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며 다음 차시 예고 및 다양한 재료 준비 공고</p>	<p>-주변정리를 깨끗이 한다.</p>	5'	

## 2) 교육적 활용 모색 및 문제점

플라주를 미술 교육에 도입시킴으로써 여러 매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표현하려하는 것들을 주변의 물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새로운 기법의 활용으로 예상치 못한 화면 효과를 봄으로써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표현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플라주의 다양한 내적 표현의 장점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술 활동을 그리고 만드는 것만이 최고의 미술 교육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학생의 미적 안목과 조형성 능력 향상과 창조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고의 발상에서부터 시작한다.

플라주의 기법의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문제점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교사의 다양한 자기 개발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표현활동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정서불안,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점등을 심리치료를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

#### 4. 교육현장 시사점과 한계점

미술 치료적 기법을 적용한 미술활동은 미술교육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 단순히 작품 활동을 통해 평가를 받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작품 활동을 통한 자신의 이해 즉,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자아 주체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술교육에서 심리치료 기법의 활용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지만 일반 아동의 미적 조형능력의 향상, 창의성 신장 및 자유로운 자아표현 등 심리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미술치료적 기법의 활용에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가적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의 내적 표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안내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술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는 미술치료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미술교사가 미술치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일선 학교에서의 미술치료 및 진단의 활용은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미술치료의 진단도구를 그대로 도입함은 교육적 성격보다 치료와 진단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수업 교육안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미술 치료적 성격과 교육적 효과 까지도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 학습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술과의 지도 내용이 학년별, 영역별 학습률에서 볼 때 모두 실기영역을 위주로 회

화, 구성, 디자인 등의 학습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회화영역에 지층한 편중된 지도 경향을 띠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41) 이러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편중된 성향으로 학생들은 점점 미술수업을 지루하게 느끼게 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만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미술교과의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쉽다.

고등학교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조사한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사고표현의 독창성과 창의성(31.7%)’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만족감과 정서함양(22.7%)이 높게 나타났다. 내신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일수록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만족감과 정서향상’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시적인 표현기술의 향상보다는 발상과 창안 그리고 정서향상과 같은 내적 사고 능력과 감성을 계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이에 따르는 교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기대 될 수 있겠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미술교육에서 미술치료적 기법의 활용은 그림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지각을 미술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데서 오는 자아주체성을 높여 미술교육이 진일보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보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41) 노부자, 「미술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일 연구」, 교육학연구 1991. vol 29, No 1, p.182

42) 허경란, 「고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교사의 역할」,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p. 33~36

## IV. 결론 및 제언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표현은 재현표현을 넘어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 자신의 내면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특성이 인간 내면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의 학문과 함께 발전하여 미술의 치유적 속성을 발견하고 미술치료라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게 하였다.

초현실주의 미술에서의 꼴라주 기법과 자동기술법은 작가 자신의 내면표현에 중점을 둔 표현활동으로 이는 미술사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꼴라주 기법의 활용은 단순한 기능 위주의 접근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초현실주의 미술의 근본적 의미의 전달에는 미흡하였다. 오늘날 미술교육에서는 종래의 기능 습득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술활동의 근본적 속성을 통한 창조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술교육의 변화에 착안하여, 현대미술 중 초현실주의 미학에 근본적 입장과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미술치료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 이를 근거로 한 미술교육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미술 심리치료적 요소를 적용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조형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의 상담에 있어서 유효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술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의 미술치료 과정의 도입 현황은 미비한 실태이다.

미술 치료의 교육적 활용은 미술치료의 학문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지닌다. 그러므로

단순히 임상 치료적 측면의 연구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술치표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하여 보다 나은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미술심리치료가 일반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문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미술학자, 교육학자, 미술사가, 미술가, 미학자 등 관련 연구자들의 통합적인 학제적 연구 활동이 절실하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교육부 (2001) : 「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 」, 대한 교과서.

백기수 (1979) : 「 미학 」,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현숙 (1997) : 「 초현실주의 」, 동아출판사.

이화여대 미술교육연구회 편 (1994) : 「 현대미술의 동향 2 」 눈빛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 「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 동화문화사.

### 번역서

로베르 르네 (1990) 김정란 역 : 「 초현실주의 」 열화당

로세르 피에르 (1979) 박순철 역 : 「 초현실주의 」, 열화당.

로버트 린튼 (2000) 윤난지 역 : 「 20세기의 미술 」, 예경.

E.H 곱브리치 (2002) 백승길, 이종승 역 : 「 서양미술사 」, 예경.

### 논문

권준범 (2001) : 「 슈타이너 교육 예술론에 의한 미술교육 방법 연구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vol 8.

\_\_\_\_\_ (2003) : 「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 미술교과교육학회 vol.10.

김남수 (2003) : 「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 한국 미술교과교육학회 vol 10.

김옥경 (2003) : 「 치유로서의 미술(순수미술의 치유적 속성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 한국기초조형학회 vol 4.

노부자 (1991) : 「 미술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일 연구 」, 교육학연구 vol.29 No 1.

\_\_\_\_\_ (1993) : 「 현대 미술교육의 새로운 동향 」, 한국조형교육학회 제 9 집 Art Education Review.

오생근 (1992) : 「 자동기술의 초현실주의적 이미지의 의미와 특성 」,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이은적 (2003) : 「 이미지 문명시대와 미술 이미지의 힘(예술심리학으로 본 미술교육) 」 한국교육학회 vol 4.

\_\_\_\_\_ (2005) : 「 미술교과서의 교육 내용 구성, 그 구체화 방안 모색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vol 7.

C. W. E Bigsby (1979) : 「 다다와 초현실주의 」 문학 비평총서 제 2집 서울대학교

조중현 (2002) : 「 미술교육을 생각한다. 」, 교육비평사

## 학위논문

- 권준범 (2002) : 「 미술 심리 치료 검사를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양희 (2003) : 「 현대미술사조에 나타난 미술치료적 요인 연구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미 (2003) : 「 초현실주의 미술에 내재된 무의식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2002) : 「 통합세계로서의 초현실주의 회화 연구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혜 (2002) : 「 예술가의 작품에 나타난 미술 치료적 표현 연구 」, 세종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호삼 (2003) : 「 초현실주의 회화의 꿈 이미지 분석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지원 (2000) : 「 미술심리치료의 이론 및 그 적용 가능성 연구 」,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영 (2004) : 「 S. Freud의 무의식을 중심으로 한 초현실주의 Automatism연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금자 (2003) : 「 미술교육에 있어서 꼴라주기법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정 (1995) : 「 초현실주의 회화의 형식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세은 (2003) : 「 미술치료를 응용한 미술교육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세경 (2003) : 「 현대미술에서 만나는 미술의 치유적 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경란 (2002) : 「 고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교사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외국 서적

Herbert Read (1968). *Art Now London Faber&Faber.*

Lusy & Lipperd(ed)(1970), *Surrealist on Art.*

Joss Piere(1974), *a dictionary of Surrealism WJ Strachea.*

Elizabeth Cowing(1983) "*Dada and Surrealism*" in a history of Art by Sir Lawrence Gowing(ed), Andromeda books

# **ABSTRACT**

## **Study for Field Application by Healing Function of Modern Art**

Yu, Hye - Ra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eneral significance of the Art education take a serious view of the changes of a process ,which emphasizes sentimental target such as creativity, advancement of thinking power, sentimental comfort and satisfaction, rather than the work of ar

Accordingly, the Art education stress the changes of a progress with try rather than the evaluation about the result by performing even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sentimental exchange with making work and appreciation. However it is true that present the Art education is taking an attitude of the evaluation about the result.

The work of art by high technique and exercise is becoming the standard of educational evaluation.

In the Art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ss on improve and express itself and own special creativity out of the idea of instruction and formal and mechanical exercise. In the result, the interest about the art therapy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The art therapy stresses the progress more than the result, makes people to present their inner express freely and helps them to have

positive self-formation. However, study of the art therapy in Korea gives too much importance in clinical research for a specific person.

The goal of this study makes much of possibility to expand the idea which is only special way to treat handicappTo solve this problem of study, I group for practical possibility which is able to be used in the school by trying to show what makes art expression activity of surrealism good for the physical cure based on considering literature. ed people by studying based on the art history and the Art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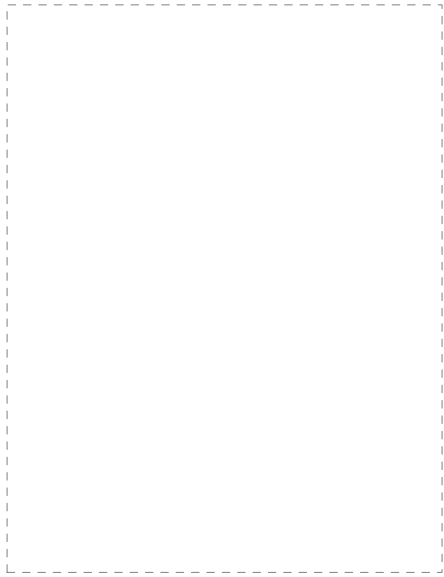
Expected functions of physical cure in the art activity of surrealism have realization of potential energy from creative expression, self-understand from unconscious expression and improvement in self-respect from self expression. It coincides with the purpose of art education.

I organized Collage and automatic technique used in surrealism art technique and expression activity of art therapy into an applicable program on the spot regard for educational 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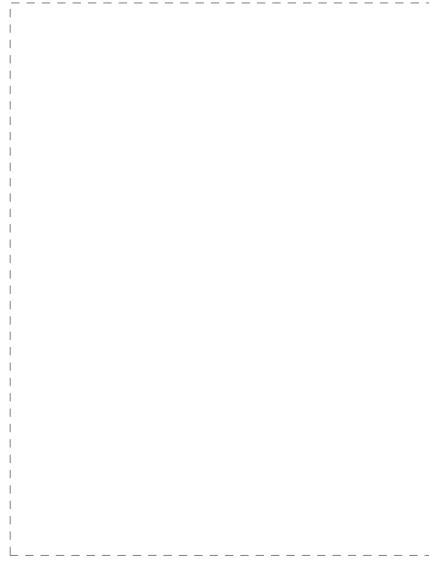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nity of physical cure of art and art history to grope for improvement of aesthetic sense , expansion of formative skill and creativity, not just to study based on any one position.

As a result, I was able to verify the educational possibility on the function of physical cure of art and it will be useful to be progressed more related studies to develop the future of the Art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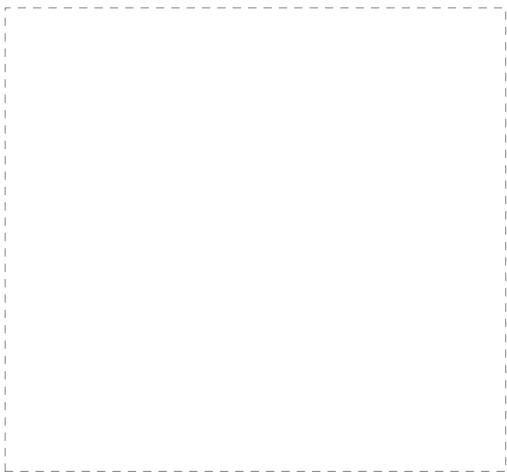
< 부 록 >



< 그림 1 >



< 그림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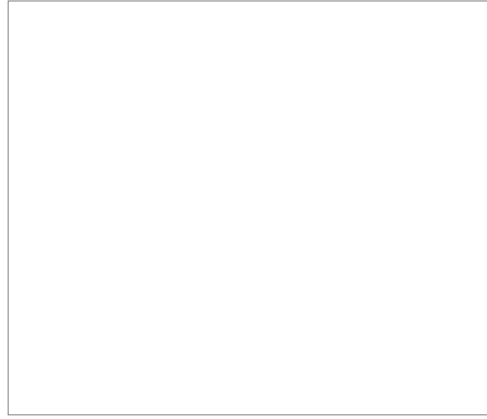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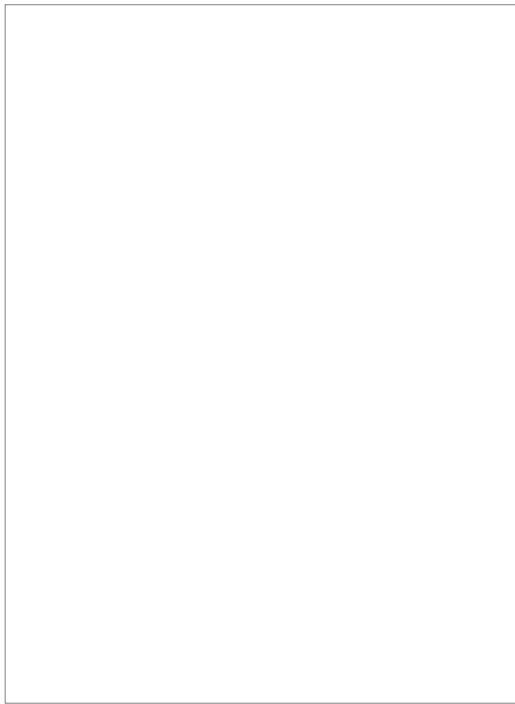
<그림 4>



< 그림 5 >



<그림 6>



<그림 7>